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17, No. 1, pp. 69~84

#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유 지 연*·박 정 윤**
한성여자고등학교*,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Parent-Child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for Adolescents

Yoo, Ji Yeon* · Park, Jeong Yun**
*Hansung Girls' High School**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n educational program, based on the family life education theory and the needs of the adolescen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Aimed to be applicable in the actual school environment, the program was practiced and successfully proved its effectiveness. Named "Parents and I : Is It Good This Way? Over the Generation Gap", the program is composed of themes such as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Understanding parents", and "Having friendly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was practiced five times, once every week, at H girls' high school located in Seoul. An evaluation was done on adolescents to see the effectiveness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there was a meaningful distinction between the results of the pre-test and the post-test.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could have a chance to understand their mid-aged parents and to express their feelings and thoughts, and evaluated that the anger-control program was a training for them to express their emotions in a rational way.

주제어(Key Words) :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부모자녀관계(parent-child relationship), 청소년(adolescents)

1) 교신저자 : 유지연(yeon605@chol.com)

# Ⅰ.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와 생리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성숙 등 다양한 변화와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에는 발달상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할 뿐 아니라 최근의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시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사회적 위치로 인하여 역할갈등, 장래에 대한 부담과 불안, 과중한 학업 부담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오재연 · 최정혜 · 김행자, 2003).

결국 청소년들은 발달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 모두에서 불안정하고 급격한 변화의 요소를 가진 채 학교교육만으로 자신들의 변화 과정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 시급한 대학입시라는 당면 과제 때문에 자신들의 전인적인 발달에 관심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중 · 고등학교의 기술 · 가정교과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있지만, 시수가 한정되어 있어 현 교육과정의 체계 내에서는 심도 깊은 내용을 학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교육 현실과 청소년들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

최근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은 가족의 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남현미 · 옥선화, 2001). 이들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가족의 심리적 환경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즉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는 청소년기에 직면하는 변화와 혼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차적인 환경적 요소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자녀간의 적절한 대화를 통하여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인식에 대한 연구(조흥식, 1995, 김순옥, 1998, 재인용)에 의하면 부모, 자녀 모두는 대화 부족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사회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는 대학입시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정서적 교류나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통신 시설의 발달로 인하여 컴퓨터 인터넷의 보급, 핸드폰의 발달 등으로 대면적 관계보다는 사이버상의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규교육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며, 이에 앞서 학교교육 외에 평생교육이나 비형식적인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한편 가족생활교육은 개인과 가족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개인 또는 가족에게 습득시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의도적인 교육활동으로, 이는 평생교육적인 특성을 갖는 사회교육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이연숙, 1998). 이러한 가족생활교육은 현재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와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 예방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가족생활교육의 한 영역으로 부모자녀관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김순옥, 1998; 송정아 · 윤명선, 1997; 유은희, 1996; 유은희 · 홍숙자, 1988; 이정연 · 이창숙, 2003),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손주영, 1998; 장재홍 · 김태성 · 김현주 · 이호준, 2000),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김경신, 1997; 이영환 · 나양균, 2002)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다.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개발된 것이 대부분이다. 즉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개발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와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중년기 부

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를 교육함으로써 부모자녀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으며, 서로가 기대하는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생활교육의 이론과 청소년의 요구도를 근거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현재 겪고 있는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기의 특성 및 부모자녀관계

청소년기는 신체 발육이 절정에 달하고 심신이 모두 자립하는 시기로 성인기를 맞이하는 준비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신장과 체중이 현저하게 증가하는데, 이러한 신체적 발달은 심리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신체적 특성은 정체감 형성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청소년기 발달과업 중의 하나이지만,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거나 혼미되는 시기로서 정체감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시기이다(김태련 · 장휘숙, 1988; 조복희 · 정옥분 · 유가효, 1994;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이 시기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자신의 능력과 존재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사회적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나름대로의 목표가 정해지면 자아정체감이 형성된다. 이 때의 정체감 형성 여부는 성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가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에는 고등학교 시기가 중요하며,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가정이다(김성일 · 김남희, 2001; 문승태 · 김연희, 2003; 백문화 · 조병은, 1992).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 자신의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은 부모의 애정과 보호를 받을 경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진다(백양희 · 최외선, 1997a; 정현희 · 오미경, 1993). 몇몇 선행연구(류경희, 2004; 정기숙, 1993; 정유미 · 김득성, 1998)에 의하면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부모자녀관계의 이상에서 기인하고 있다.

부모자녀관계를 단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매개체가 의사소통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기 가족 내에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가 균형적으로 발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녀와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김수연 · 정문자, 1997; 김희화 · 김경연, 1998; 백양희 · 최외선, 1997b; 이경주 · 신효식, 1990; Chilman, 1988). 즉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원만한 관계 및 가족간의 상호활동을 증진시키며, 서로의 정보 교환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자녀의 사회화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은정, 1996). 특히 오재연 외 2인(2003)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비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활성화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은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의사소통을 한 변인으로 보고 청소년 비행(민하영, 1991), 학업성적(김옥희, 2002), 또래관계(김영미, 2000), 청소년의 인성(권은정, 1996) 등과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등 인성 특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및 부정적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소년기에는 가족과의 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청소년들이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이론 및 내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개발자가 취하는 관점에 따라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구성이 달라진다. 가족생활교육의 이론적 관점 중 하나인 건강 가족적 관점은 부정적인 면을 감소시키기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강점을 지지하고 강화함으로써 잠재력을 개발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개인적 차원의 긍정적인 사고와 책임감 육성, 효율적인 의사소통 등을 중요시한다(이정연, 1998).

한편 Miller와 Seller는 〈표 1〉과 같이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 관점들은 프로그램 개발에서 지배적인, 상이한 철학적 관점을 표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달적 관점은 상이한 발달단계에 따른 학습자들 간에 차이를 두지 않은 반면, 변형적 관점은 학습자들의 발달단계가 프로그램 계획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Arcus, Schvaneveldt, & Moss, 1993/1996).

같은 기초적인 원리에 의해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한다(이정연, 1998).

- 프로그램은 교육자와 참여자의 특별한 욕구와 성격에 알맞게 준비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관련되는 제반 요소-적용과 활용-를 모두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 개발의 전체 과정에 있어서 참여자의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전생애주기적 접근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은 참여자를 중심으로 항상 변화하는 요구와 기회에 융통성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은 교육 실시자를 위한 work-book이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원리에 의하여 미국 가족관계협회(NCFR)는 가족생활교육의 주요 내용 영역에 대한 개관인 "생애주기적 가족생활교육의 기본 틀"을 개발하였다.

〈표 1〉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세 가지 관점

| 관점 / 요소 | 전달적 관점 | 상호작용적 관점 | 변형적 관점 |
|---|---|---|---|
| 학습자 | 지식의 수동적인 소비자 |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존재, 이성적인 사고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존재 | 다양성과 고유성의 특징을 지니는 반면, 공통된 사회적 욕구와 관심도 공유하는 존재 |
| 지식 | 학습되는 주제나 내용 | 탐구에 의해 산출될 수 있는 것 |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되며, 개별적인 요소를 지닌 것 |
| 교육의 목적 |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준비로서 사실과 기술, 가치를 전달하는 것 | 인지적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고 문제해결시 지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 개인적, 사회적 변화를 활성화하는 것 |
| 학습이론 | 행동주의 | | 구성주의 |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많은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김순옥, 1998; 손주영, 1998; 유은희, 1996)은 전달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수없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정보 사회에서 지식 중심의 전달적 관점에 의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은 한시적인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관점의 전환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다음과

이 개념들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가족생활의 많은 측면에 관해 배울 필요가 있다는 가정을 기초로 하였으며, 가족생활교육에서 질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장을 고무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그 중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가족생활교육의 내용은 가족상호작용, 부모됨에 관한 교육 등의 두 가지 주제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요 개념으로는 가족 안에서 감정 표현하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갈등해결 등이 제시되어 있다(Arcus, Schvaneveldt, & Moss, 1993/1996).

우리나라의 가족생활교육의 영역에 대하여 김경신(1996)은 기존 선행연구들의 구분을 기초로 하여 인간발달, 가족과 사회, 결혼과 성, 부부관계, 부모됨, 노인과 가족, 특수가족, 가족자원관리, 여성문제 등의 9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중 부모됨의 영역은 가족계획, 부모의 책임과 의무, 자녀양육방법, 올바른 교육열, 부모자녀 갈등, 아동학대, 자녀의 독립,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녀의 사회화, 매스컴과 자녀 등의 내용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가족생활교육에서 부모자녀관계는 자주 다루어지는 교육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부모를 대상으로 많이 개발되었다(김경신, 1997; 김순옥, 1998; 손주영, 1998; 송정아·윤명선, 1997; 유은희, 1996; 유은희·홍숙자, 1988; 이영환·나양균, 2002; 이정연·이창숙, 2003; 장재홍 외 3인, 2000). 김순옥(1998)은 자녀와의 대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류분석이론을 근거로 하여 10대 자녀를 둔 부모 19명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주 1회씩 회기당 120분간 6단계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7회째 추수교육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강의, 집단토의, 실습 등의 교육방법을 활용하였고, 부모의 대화 태도 및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김경신(2001)은 한부모 가정의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모(부)와 자녀 20~30쌍을 대상으로 4단계 구성을 하였으며,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으로 회기당 100분간 강의와 활동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다룬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를 대상으로 개발된 청소년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부모교육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자녀를 포함하고 있지만 전체 프로그램에서 1~2회기만 자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대상으로 개발된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의 입장에서 그들이 주된 교육 수요자가 되는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본 프로그램은 II장에서 살펴본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세 가지 관점 중에서 변형적 관점으로 개발되었다. 변형적 관점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으면 학습자들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과 기술 습득에 국한된 교육이 아닌, 사회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의 학습 대상자인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부모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의 발달단계가 프로그램 계획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변형적 관점으로 개발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요구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H 여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2004년 5월 25일~26일에 진행되었다. 조사 도구는 자유기술식 설문지로서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에 관한 2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결과는 자유기술식의 응답을 비슷한 유형으로 유목화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방법은 5~10명(67.3%)의 소규모로 방학(62.6%)때 주당 1회(43%)의 교육을 60분~120분간(59.8%) 실시하는 것이며, 강의, 역할극, 토론, 실습 등의 다양한 교육형태 중에서 역할극(43%)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교육내용은 부모자녀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 부모와의 원활한 대화 방법, 부모와 자녀의 세대간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이었고, 이는 응답자들이 원만한 부모자녀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교육을 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가족생활교육의 이론과 위에서 제시된 요구도 조사를 근거로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현재 청소년들은 과중한 입시 경쟁으로 인하여 학기 중에는 학업 이외의 다른 것

을 살펴 볼 여유가 많지 않으므로 방학기간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2. 교육대상

실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H 여자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교육대상자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아직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비교적 적고, 부모와의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미 형성된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다른 어느 시기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육대상자는 연구자가 H 여자 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취지,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총 10명의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3. 교육평가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척도를 이용한 양적 효과에 대한 검증과 개별 면접 및 자유기술식 문항을 통한 질적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양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자녀관계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사전, 사후검사는 Barnes & Olson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유지연(1998)의 척도 20문항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모자녀관계 향상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방해 요소인 분노에 대한 사전, 사후검사는 김용태·박한샘·강신덕(1995)의 척도 11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 3인의 검토와 검증을 기초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질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유기술식 문항은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 교육방법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의 보완점에 대한 평가, 기타의 평가 등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유기술식 문항을 작성한 후 학생들과 개별 면접을 실시하여 질적 효과에 대한 검증을 보완하였다.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2004년 12월 28일부터 2005년 1월 25일까지 주 1회씩 5회를 실시하였고, 방학 중 보충수업기간에는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 보충수업이 없는 기간에는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H 여자 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실시 전후로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평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주요 통계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paired t-test 등이다. 통계처리는 SPSS Win ver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Ⅳ. 연구결과

1. 프로그램의 구성

1) 프로그램의 제목: 부모와 나, 이대로 좋은가? - 세대의 벽을 넘어서!

2)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현재 겪고 있는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부모를 이해함으로써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한다.
*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다.
*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분노를 조절한다.
* 프로그램의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한다.

3)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본 프로그램은 총 5회로 구성되었고, 청소년들이 부모세대의 변화 및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호혜적인 의사소통

이 가능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부모와 나, 이대로 좋은가? - 세대의 벽을 넘어서!" 프로그램은 1회기에서 진행자, 참여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2회기에서 중년기의 부모를 이해하고, 3회기에서 잘 들음으로써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4회기에서 분노를 조절하고, 5회기에서 바람직한 말하기를 통하여 부모와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4) 프로그램의 교육방법

본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학생을 모집하여 학교 교실 또는 상담실에서 방학 중 주 1회씩 5회를 실시하였고, 회기당 교육시간은 120분이었다. 교육집단의 규모는 10명 내외의 소규모로 실시하였으며, 교육방법은 강의와 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활동은 상황 역할극, 토론, 워크시트지를 활용한 실습 등으로 다양하게 실시되었다. 교육이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실습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2. 프로그램의 내용

1회기 : 만나서 반갑습니다.

| 교육과정 | 교 육 내 용 |
|---|---|
| 교육목표 |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br>· 본 프로그램의 필요성, 목적 등에 대하여 참여자가 이해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 동기를 증진시킨다.<br>·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참여자 상호간의 이해를 돕고 친밀감을 형성한다. |
| 교육 및 활동 | 【강의】<br>1. 진행자는 참여자에게 다음을 소개한다.<br>· 프로그램 진행자<br>· 프로그램의 취지 및 목표, 교육내용, 진행 계획<br>· 참여자의 자세 및 규정<br>【활동】<br>1. 진행자는 참여자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과 분노조절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br>2. 참여자는 두 명씩 짝을 지어 서로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자료 1] "내 친구를 소개해요!"를 완성한 후, 전체 그룹에게 자신의 짝을 소개한다.<br><br>[자료 1]<br>**내 친구를 소개해요!**<br><br>남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하게 됩니다. 늘 가까이 대하고 있는 가족 간에는 보다 정확하게 그들의 생각을 파악하고 도와주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짝은 어떤 사람인가요?<br><br>1. 내 친구 ( )의 자랑거리는 _____입니다.<br>2. 내 친구 ( )가 생일 선물로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은 _____입니다.<br>3. 내 친구 ( )의 장래 희망은 _____입니다.<br>4. 내 친구 ( )의 버릇은 _____입니다.<br>5. 내 친구 ( )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_____입니다.<br>6. 내 친구 ( )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_____입니다.<br>7. 내 친구 ( )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_____입니다.<br>8. 내 친구 ( )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_____입니다.<br>9. 내 친구 ( )는 _____ 할 때 가장 부끄러워합니다.<br>10. 내 친구 ( )의 가족은 _____입니다.<br><br>느낀 점: |
| 과제 | 현재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적어온다. |

2회기 : 앗! 우리에게 이런 차이가…(부모에 대한 이해)

| 교육과정 | 교 육 내 용 |
|---|---|
| 교육목표 | 부모를 이해함으로써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한다.<br>· 중년기 부모의 변화,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를 이해한다.<br>· 자신과 부모 세대간의 차이를 이해한다.<br>· 자신의 부모자녀관계를 분석한다. |
| 교육 및 활동 | 【강의】<br>1. 진행자는 청소년기 가족의 부모 특성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하여 설명한다.<br>1) 청소년기 가족의 부모 특성 (1) 중년기의 신체적 변화 (2) 중년기의 인지적, 심리적 변화<br>(3) 중년기의 사회적 변화<br>2) 청소년기 가족의 부모자녀관계 (1)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의 특성<br>(2) 청소년기 부모자녀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br>【활동】<br>1. 참여자는 과제로 해 온 내용을 발표한다.<br>2. 참여자는 앉아있는 자리를 기준으로 2개의 집단을 형성하고, 다음의 내용을 토론한 후 서로의 의견을 발표한다.<br>· 최근 한 달 동안 부모와 심하게 다투거나 갈등이 있었던 상황은 무엇인가요?<br>· 부모와 세대차를 가장 많이 느꼈던 경우는 무엇인가요?<br>(예: 장래희망, 옷차림, 좋은 학생에 대한 기준)<br>· 왜 이러한 갈등과 세대차가 생기는 것일까요?<br>·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br>·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
| 과제 | 일주일동안 부모님과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지를 작성해온다. |

3회기 : 마음을 열고 I (듣기)

| 교육과정 | 교 육 내 용 |
|---|---|
| 교육목표 | 바람직한 듣기를 통하여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다.<br>· 의사소통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이해한다.<br>· 의사소통에서 듣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br>· 바람직한 듣기 방법을 실천한다. |
| 교육 및 활동 | 【강의】<br>1. 진행자는 의사소통과 듣기에 대하여 설명한다.<br>1)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 (1) 의사소통의 개념 (2)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br>(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br>2) 바람직한 듣기 태도 (1) 잘 듣는 것이란? (2) 듣기의 방해 요소 (3) 바람직한 경청하는 자세<br>【활동】<br>1. 참여자는 과제로 해 온 내용을 발표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감한다.<br>2. 참여자는 다음에 제시된 순서대로 〈감정카드 놀이〉를 한다.<br>· 참여자 중 한 사람이 술래가 된다.<br>· 진행자가 감정카드 중 하나를 술래에게 보여주고,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도록 지시한다.<br>· 나머지 참여자는 술래의 비언어적 메시지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지 맞춘다.<br>· 결과를 발표하고 비언어적 매체의 중요성에 대하여 토론한다.<br>3. 진행자는 참여자에게 색종이 1매를 나누어주고, 다음에 제시된 순서대로 〈색종이 놀이〉를 한다.<br>· 참여자는 눈을 감는다.<br>·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색종이를 질문없이 접고 찢는 작업을 한다.<br>· 작업이 종료되면 참여자는 눈을 뜬다.<br>· 참여자는 각자 자신의 색종이를 보고 느낀 점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한다. |
| 과제 |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실제 적용해본다. |

4회기 : 마음을 열고 II(분노조절)

| 교육과정 | 교 육 내 용 |
|---|---|
| 교육목표 |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분노를 조절한다.<br>· 타인의 감정 상태를 인식한다.<br>· 화가 났을 때 자신의 상태를 파악한다.<br>·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실천한다. |
| 교육 및 활동 | 【강의】<br>1. 진행자는 지난 시간의 과제를 점검한다.<br>2. 진행자는 분노의 정의 및 개념, 분노조절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br>1) 분노의 정의<br>2) 분노와 관련된 개념들<br>3) 분노조절을 위한 접근 방법 (1) 분노가 발생되는 과정 (2) 분노조절 방법<br>【활동】<br>1. 참여자는 최근 화가 났던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해보고 [자료 2] "나는 화가 났을 때 어떤가요?"를 작성한 후, 화가 났을 때 자신의 반응에 대하여 생각해본다.<br>[자료 2]<br>**나는 화가 났을 때 어떤가요?**<br>당신이 최근 화가 났던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다음을 완성하세요.<br>· 화가 났던 상황은?<br>· 내가 주로 분노를 느끼는 상황은?<br>· 화가 났을 때 나의 신체적 변화는?<br>· 나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br>· 화를 내고 나면 나(또는 타인)에게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br>2. 참여자는 두 명씩 짝을 지어 화가 났던 상황에 대하여 즉흥적인 역할극을 실연하고, 각자의 느낌을 발표한다. |
| 과제 | 분노조절 방법을 1주일동안 실제 생활에서 실행해보고, 그 결과와 느낌 등을 적은 실행보고서를 진행자에게 제출한다. |

5회기 : 마음을 열고 III(말하기)

| 교육과정 | 교 육 내 용 |
|---|---|
| 교육목표 | 바람직한 말하기를 통하여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다.<br>· 말하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br>· 자신의 말하는 태도를 인식한다.<br>· 바람직한 말하기 방법을 실천한다. |
| 교육 및 활동 | 【강의】<br>1. 진행자는 말하기에 대하여 설명한다.<br>1) 말하기의 중요성<br>2) 말하기의 방해 요인<br>3) 효과적인 말하기(나-전달법)<br>4) 좋은 의사소통을 위한 10가지 지침 |

| | |
|---|---|
| 교육 및 활동 | 【활동】<br>1. 참여자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 다음에 제시된 순서대로 〈말 전달하기 놀이〉 를 한다.<br>· 각 집단의 대표를 뽑는다.<br>· 뽑힌 대표자는 맨 앞에 나오고, 나머지 참여자는 일렬종대로 선다.<br>· 진행자가 보여주는 그림을 10초 정도 관찰한다.<br>· 그림을 보고 난 후 대표자는 일렬종대에서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귓속말로 그림에 대해 설명한다. 단,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주의한다.<br>· 각 집단의 말하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br>· 모두 마치면 각 집단의 마지막 사람은 전달받은 내용을 전체 앞에서 발표한다.<br>· 말한 내용과 그림을 비교해본다.<br>2. 참여자는 짝을 지어 다음에 제시된 순서대로 〈청개구리 대화 놀이〉 를 한다.<br>·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 초등학교 때 경험한 이야기를 2분간 번갈아가면서 말한다. 이 때 듣는 사람은 몸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다.<br>· 다음에는 서로 옆으로 나란히 앉아 중학교 때 경험한 이야기를 2분간 번갈아가면서 말한다. 듣는 사람은 청개구리처럼 듣는 등 마는 등 딴청을 한다.<br>· 서로 마주 앉아 쳐다보면서 최근의 경험을 2분간 번갈아 가면서 말한다. 이 때 고갯짓과 미소를 머금고 "응, 맞아, 그래서, 그렇구나" 등의 맞장구를 친다.<br>· 놀이가 끝나면 들을 때의 느낌과 말할 때의 느낌을 서로 이야기한다.<br>3. 진행자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정리한다.<br>4. 진행자는 참여자들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과 분노조절에 대한 사후검사와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한다. |
| 과제 | 프로그램의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한다. |

### 3. 프로그램 실시와 효과

부모자녀관계 향상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단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부모와 나, 이대로 좋은가? – 세대의 벽을 넘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프로그램은 H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1회씩 5회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척도를 이용한 양적 효과에 대한 검증과 개별 면접 및 자유기술식 문항을 통한 질적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 1)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양적 효과

#####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 변화의 효과

부모자녀관계의 의사소통 능력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참여한 학생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변화가 어머니와의 관계 변화보다 더 많은 문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측면을 살펴보면, "나는 아버지에게 나의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의논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프로그램 실시 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t=-2.500$, $p<.05$). 또한 "나는 아버지께 애정을 솔직히 표현한다"에 대해서도 평균차가 1.29로 나타났고($t=-2.465$, $p<.05$), "나는 아버지께 나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잘 표현한다" 역시 사전, 사후검사에서 의미있는 평균 변화를 보였다($t=1.987$, $p<.05$). "나는 어떤 것에 대한 나의 느낌을 아버지께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렵다"의 문항도 사전, 사후검사에서의 평균값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청소년기 자녀와 아버지와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대화가 단절되어 있음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표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사전, 사후검사의 차이 검증(아버지)

| 문 항 | 사전검사 M(SD) | 사후검사 M(SD) | paired-t |
|---|---|---|---|
| 나는 아버지에게 나의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의논한다. | 2.71(1.12) | 3.42( .98) | -2.500* |
| 아버지께서는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신다. | 3.86( .90) | 3.71(1.11) | -.258 |
| 나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의논한다. | 2.86(1.21) | 3.14( .69) | -1.000 |
| 나는 아버지께 애정을 솔직히 표현한다. | 2.71(1.38) | 4.00(1.15) | -2.465* |
| 나에게는 아버지와 얘기하기 꺼리는 화제가 있다. | 2.57(1.27) | 3.43(1.27) | -1.441 |
| 나는 아버지께 나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잘 표현한다. | 2.29( .95) | 3.00( .98) | 1.987* |
| 나는 어떤 것에 대한 나의 느낌을 아버지께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 3.86( .37) | 3.57( .98) | 1.000 |

* p< .05

<표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사전, 사후검사의 차이 검증(어머니)

| 문 항 | 사전검사 M(SD) | 사후검사 M(SD) | paired-t |
|---|---|---|---|
| 나는 어머니에게 나의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의논한다. | 4.29(1.11) | 3.85( .69) | 1.162 |
| 어머니께서는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신다. | 4.43( .98) | 4.00( .82) | .891 |
| 나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니와 의논한다. | 4.29( .95) | 4.00(1.00) | .603 |
| 나는 어머니께 애정을 솔직히 표현한다. | 4.14(1.07) | 4.00(1.00) | .548 |
| 나에게는 어머니와 얘기하기 꺼리는 화제가 있다. | 3.29(1.38) | 3.29(1.25) | .000 |
| 나는 어머니께 나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잘 표현한다. | 4.00( .82) | 4.00(1.15) | .000 |
| 나는 어떤 것에 대한 나의 느낌을 어머니께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 3.86(1.07) | 2.14( .69) | 2.661* |

* p< .05

반면에 어머니와의 관계 변화에 대한 사전, 사후검사의 경우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이 없었다(표 3참조). "나는 어떤 것에 대한 나의 느낌을 어머니께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렵다"라는 문항은 사전, 사후검사에서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는데(t=2.661, p<.05), 이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말하기 연습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문항들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높은 정서적 유대 관계를 이미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전체 평균에 대한 차이를 보더라도 어머니와의 대화가 원만함을 알 수 있다.

(2) 분노조절의 효과

부모자녀관계 향상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방해 요소인 분노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에 대한 인지와 분노 행동을 조절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체 평균과 각 문항별 사전, 사후검사에서의 평균 변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적 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참여한 학생들은 5가지의 자유기술식 문항에 대해서 응답하

〈표 4〉 분노조절에 대한 사전, 사후검사의 차이 검증

| 문 항 | 사전검사 M(SD) | 사후검사 M(SD) | paired-t |
|---|---|---|---|
|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같아서 화가 난다. | 2.29( .76) | 2.00( .82) | 1.000 |
| 화가 나면 나를 주체하지 못한다. | 2.43(1.27) | 1.86( .38) | .934 |
| 사람들이 나와 의견을 달리할 때 화가 난다. | 2.57( .98) | 3.00(1.29) | -1.000 |
| 사람들이 나의 생각이나 행동을 반대할 때 화가 난다. | 2.29( .95) | 3.14(1.35) | -1.216 |
|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난다. | 3.43( .98) | 2.86(1.35) | 1.188 |
| 나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서 화가 난다. | 2.14(1.35) | 2.14( .90) | .000 |
| 나는 내가 제일 못난 것 같아서 화가 난다. | 2.14(1.21) | 1.86(1.24) | .795 |
| 전 체 | 17.29(3.86) | 16.86(4.10) | .232 |

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최종까지 참석했던 7명의 학생 모두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스러웠다", "부모와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등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중년기 부모의 특성과 부모자녀관계를 다루었던 교육내용을 통해서 부모자녀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내용들이어서 좋았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교육인 것 같다", "내가 조금은 성숙해진 것 같다" 등의 응답도 제시하였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교육을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참여한 학생들은 '부모에 대한 이해', '듣기', '분노조절', '말하기' 등의 4가지 주제 모두 흥미롭고 새로웠다고 지적하였다. '부모에 대한 이해'의 교육내용은 어렵고 지루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의외로 쉽고, 실감나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중년기 부모의 변화'에 대한 교육내용은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의 부모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부모자녀간의 세대차가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되었던 점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라고 하였다. '분노조절'의 교육내용에 대한 "내가 화낼 때의 모습을 역할극을 하면서 더 잘 이해되었다", "내 친구들이 화날 때 나와 비슷하게(다르게) 대하는구나" 등의 평가를 살펴볼 때, 분노에 대한 자아통찰과 타인을 통한 자기반성을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듣기', '말하기'의 교육내용도 역시 "매우 재미있고, 유익했다"라고 응답하였다. 참여한 학생들은 "실습과 병행되면서 경청하는 자세, 말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었다", "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표현의 양극성을 배우면서 너무 신기했다" 등과 같이 의사소통의 기본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교육방법에 대한 평가는 이론보다는 실습, 즉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학생들 모두가 1회기 '부모에 대한 이해'에서의 강의식 이론 교육보다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놀이, '분노조절'에서의 역할극 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참여한 학생들은 "활동이 많아서 좋았다", "감정카드 놀이, 말 전달하기 놀이가 너무 재미있고 실감 났어요" 라고 응답하였다. 성인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육에서도 참여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이 강의식 이론 교육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프로그램의 보완점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은 회기 당 시간이 부족하고, 추가 교육과 교육활동 추가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1회기 당 교육시간은

120분으로 진행하였으나, 참여한 학생들은 실습과 상황극 등을 실시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였으므로 교육 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총 5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참여한 학생 모두가 교육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제기하면서 더 많은 회기와 또 다른 유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참여한 학생들의 이러한 반응은 현재 청소년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기존의 프로그램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외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장소였으면 좋겠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과와 많은 예시가 좋았다" 등으로 교육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프로그램 진행 환경이나 교육대상에 대한 아쉬움과 요구를 제시하였다.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건강한 청소년기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청소년들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우선, 교육 수혜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와 나, 이대로 좋은가? – 세대의 벽을 넘어서" 프로그램은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 인식, 부모에 대한 이해,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방법은 강의와 활동을 병행하였는데 교육이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실습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H 여자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1회씩 5회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검증 평가를 토대로 다음의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규 학교교육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검증되었다.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참여한 학생들은 계속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을 뿐 아니라 양적, 질적 평가 과정에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실히 호소하였으며, 프로그램 보완점에서도 추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나 횟수의 증가 등을 요구하였다. 특히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였기 때문에, 본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부모자녀관계의 태도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실시된 많은 부모자녀관계 프로그램은 부모 특히 어머니 대상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극히 제한적이며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연령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연계해본다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즉 청소년기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중년기적 변화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자녀양육은 아직까지 어머니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들은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오재연 외 2인(2003)의 연구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측면이 검증되었지만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가부장적 아버지상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아버지와 자녀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한 학생들이 가족생활교육 자체를 생소하게 여겨 라포 형성이나 1회기 진행에 있어서 프로그램 자체보다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강조해야 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회기가 지속되면서 본 프로그램이 학교교육과는 다르게 자유

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적이나 입시와는 별개로 자신과 가족을 주제로 교육을 하고 이러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가졌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교육 체제에 익숙해져서 수동적이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으며, 진행자의 눈치를 보는 등 교육 진행상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이는 교육받는 피교육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중·고등학교의 학교교육에서 가족생활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정규교육의 일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규적인 학교교육과 비정규교육인 가족생활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여 일회적이거나 단기적 안목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입시교육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병폐들을 보완하고 전인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논의를 통해서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점이 자녀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특히 아버지와 자녀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추후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자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또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인성 회복 및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이러한 가족생활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규교육과정과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프로그램 사전, 사후평가 도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사후평가에서 교육 참여자들이 제시한 긍정적인 질적 평가에 비해서 양적 평가에서는 결과의 통계적 의미가 적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교육내용에 적절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활발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와 평가는 교육 환경인 지역, 참여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동일 또는 유사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교육대상자들에게 실시함으로써 가족생활교육을 보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권은정(1996).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만족도와 청소년의 인성특성**.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신(1996). 행정기관에서의 가족생활교육의 실태 및 요구도 분석을 통한 발전 방향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4(6), 141-154.

김경신(1997). 편모가족에 대한 가족생활교육 실태 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2), 187-199.

김경신(2001). 한부모 가정의 부모자녀관계 향상 교육 프로그램.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개소 10주년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자료집**, 102-110.

김성일·김남희(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75-89.

김수연·정문자(1997).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5(3), 181-192.

김순옥(1998). 자녀와의 대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한국가족관계학회 편. **가족생활교육-이론 및 프로그램** (pp. 201-215). 서울: 도서출판 하우.

김영미(2000).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부모와의 의사소통, 선생님과의 관계 및 학교활동을 중심으로**.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옥희(200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적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태·박한샘·강신덕(1995). **청소년의 분노조절 훈련 프로**

그램.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김태련 · 장휘숙(1988).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김희화 · 김경연(1998).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2), 47-60.

남현미 · 옥선화(2001). 가족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아통제력 및 친구 특성이 청소년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류경희(2004). 창원시 중 ·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3(2), 195-213.

문승태 · 김연희(2003). 고등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와의 애착 및 자아정체감이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 16(2), 1-16.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 응집성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문화 · 조병은(1992).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동거와 비동거 가족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0(2), 219-235.

백양희 · 최외선(1997a). 환경 변인 및 부모-자녀 유대 관계가 농촌 고등학생들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6), 71-86.

백양희 · 최외선(1997b). 환경 변인 및 내적 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농촌, 도시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5(2), 33-47.

손주영(1998). 아버지를 위한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 이연숙 저, **성인을 위한 가족생활교육론** (pp. 241-250). 서울: 학지사.

송정아 · 윤명선(1997).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 향상 프로그램 모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71-82.

오재연 · 최정혜 · 김행자(2003). 가족의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5(4), 55-66.

유은희(1996). 청소년 자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1-17.

유은희 · 홍숙자(1988). 부모교육 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6(1), 157-168.

유지연(1998). **정신장애인 가족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주 · 신효식(1990). 청년기 자녀의 아버지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13.

이연숙(1998). **성인을 위한 가족생활교육론**. 서울: 학지사.

이영환 · 나양균(2002). 놀이를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자녀 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과학회지, 5(1), 1-13.

이정연(1998). 가족생활교육의 본질. 한국가족관계학회 편, **가족생활교육 이론 및 프로그램** (pp. 1-35). 서울: 도서출판 하우.

이정연 · 이창숙(2003). 초기 청소년기 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2(2), 161-171.

장재홍 · 김태성 · 김현주 · 이호준(2000).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 **2000 청소년 상담연구 86**, 1-58.

정기숙(1993). 소년 비행의 경향과 가족 병리와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3), 143- 155.

정유미 · 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3), 31-45.

정현희 · 오미경(1993).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85-95.

조복희 · 정옥분 · 유가효(1994). **인간발달-발달심리학적 접근**. 서울: 교문사.

한국청소년개발원(1995). **청소년 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서원.

Arcus, M. E., Schvaneveldt, J. D., & Moss, J. J.(1996). **가족생활교육의 기초**. (이정연, 장진경, 정혜정 역). 서울: 도서출판 하우. (1993년 원저 출판).

Chilman, C. S.(1988). Troubled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 Nunnally, E. W., Chilman, C. S., & Cox, F. M.(Eds.), *Troubled Relationships : Families in Trouble Series, Vol. 3* (pp. 96-116).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s.

##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교육의 이론과 청소년의 요구도를 근거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와 나, 이대로 좋은가? - 세대의 벽을 넘어서" 프로그램은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 인식, 부모에 대한 이해,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H 여자 고등학교에서 주 1회씩 5회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램은 사전, 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참여한 학생들은 중년기 부모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